

1만 3000명의 응원·기부로 만들어낸 기적

‘곡성에서 매일 만나는 소아과’ 내달 2일 오픈

곡성보건의료원, 5월 2일부터 의사 상주 진료 시작

고향사랑기부제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시즌2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기부를 통해 매일 소아과 진료를 실시한다. 곡성군은 보건의료원에서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육과 통합보건의료소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소아과를 이용할 수 있다. 육과 보건지소는 광주지역 의사가 출장을 통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고 보건의료원에는 의사가 상

주한다.

곡성군은 지역민이 소아과 진료를 위해 인근의 광주나 순천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 지정 기부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를 추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만3000여명의 응원으로 이어져 지난해 출장 형식의 소아과 진료가 시행됐다. 다음달 2일부터는 의사가 상주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의 지역의료 붐괴를 막기 위



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도전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계속될 예정이다. 매일 만나는 소아과의 지속성을 위해 ‘곡성에서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지정기부 사업은 현재 고향사랑E음과 위기브, 시즌 5개 은행을

통해 모금중에 있다.

또 다른 지정 기부 사업인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팔레방 사업’은 4월 14일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모금 종료되어, 현재 마음팔레방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등 사전 준비가 진행중이며, 또한 곡성군의 유기 동물들이 안락사보다는 입양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프로젝트’는 현재 많은 관심속에 모금중에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소아과 진료를 할 수 있게됐다”며 “아이 낳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홍경백 기자

해남,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상’

해수부 주관 우수지자체 평가선정

해남군은 해양수산부(해수부) 주관 지난해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사업의 집행률, 준공현황, 사전절차 추진현황, 기관의 노력 및 우수관리 성과 등을 종합 평가했다.

해수부의 국책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해남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2019년 2개소 150억원, 2020년 3개소 247억원, 2021년에 2개소 182억원, 2022년 2개소 170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749억원을 투입해 총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중 남성항과 성산항 등 7개소를 준공했다. 동현항 등 2개소는 추진 중이다.

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도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장흥,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처분 일시 보류

장흥군은 무재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7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 있으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보호 및 조세 정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재산, 부도·폐업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번호판영치, 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강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담양, 잔류농약 무료 검사
안전한 농산물 공급 앞장

담양군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정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총 463종의 농약 성분을 극미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24년 2,430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해 담양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검사는 담양군 농업인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검사 희망자는 수확 2주 전 농산물 시료(1kg 이상)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제공된다.

/담양=조승재 기자

정철원 군수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안, 26~27일 ‘세계김밥페스타’… 정원김밥 등 9종 판매

피아노섬 축제·보라해 댄스 페스티벌과 동시 개최

신안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제3회 신안세계김밥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개최한 김밥페스타는 올해 3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군이 개발한 신안 김밥 9종을 판매한다.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형상화한 신안정원김밥, 리코타 치즈를 넣은 리치김밥, 새우와 김을 섞어 만든 전을 김밥 안에 넣고 감싼

김전김밥 등이 대표적이다. 김밥 가격은 행사기간 동안 2000원부터 최고 5000원까지 착한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신안정원김밥 콘테스트와 바티칸 교황 수석제프인 부로노칭골라니의 쿠키쇼와 신안김밥 개발자에게 배워보는 신안김밥 쿠키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진행한다.

또 신안정원김밥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김밥 만들기과 슬로시티 홍보 체험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며, 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에

게 신안쌀, 팥풍강정 등 1500여 개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올해 김밥페스타는 지난해보다 확장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주변에 조개박물관, 수석전시장, 휴양림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휴일 주말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피아노섬 축제,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돼 3가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김밥의 주재료를 모두 생산하는 김밥의 1번지”라면서 “신안세계김밥페스타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정경옥 기자

무안, 내년 국·도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8463억 원 건의사업 대응전략·추진상황 집중 점검



무안군은 22일 김산 군수 주재로 2026년 국·도비 지원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부 정책방향, 주요 현안, 미래 성장산업과 연계된 신규·공모·지특 사업 등 총 80건,

8,463억 원의 건의사업에 대하여 대응 전략과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무안군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459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100억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

성사업 200억원 ▲남악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82억원 ▲토퍼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1억원 등이다.

군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미비한 사항들을 적극 보완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도 예산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민생안정, AI·첨단산업 지원, 지역소멸 극복 등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 한발 앞서 대응하고 발로 뛰면서 국·도비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목포,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 실시

목포시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책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무, 현장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 및 발주 부서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이어졌으며, 계약 및 현장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각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군-경희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영암중학생 15명과 경희대학생 14명이 21일 영암군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열린 ‘청소년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티와 멘토로 만났다.

이 대학생들은 영암군과 경희대의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5 사회혁신스쿨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6일 동안 영암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도시 재생, 청소년 멘토링 등 지역을 혁신할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다.

형준·준수 학생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즈학, 조리서비스경영학, 미디어학, 외식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은, 이날 영암 청소년들에게 자기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진로 상담 △공부 방법 △대학생활 등을 1:1로 설명해 줬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의 차이, 내신과 수능 준비 방법, 중·고등학교 공부법과 과목별 공부 전략 등을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풀었다.

특히, 영암 청소년들의 사전 멘토링 신청서를 받아 본 대학생들은, 동료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상담자를 배정하는 등 맞춤형 답변으로 처음 만난 지역 청소년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763ha 양식 어장 정화 사업 추진

총 5억 원 투입 완도읍 장좌리 등 5개 어촌계 대상 실시

완도군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식 어장 정화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양식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읍 장좌리 등 5개 어촌계 양식 어장(763ha)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매년 어촌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어촌계 면허 유효기간, 양식 어장의 오염 심화 정도, 어장 재배치 여부 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주변 어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30억 원을 투입, 26개 어촌계 2,767ha의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총 868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바다의 자정 능력 회복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물 품질이 향상되어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어장 정화선 이용 찾아가는 해양 쓰레기 수거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조업 중인 양어 쓰레기 수매 사업 등 총 46억 원을 투입해 해양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해양 생태계 회복과 수산 증강을 위해 총 23억 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을 위한 바다 숲 조성 ▲해삼서식기반 조성 및 씨 뿌림 ▲건강한 수산종자 방류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순천교육청, 학부모회연합회 협의회 개최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순천학부모회연합회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순천학부모회연합회를 이끌며 다양한 교육 참여 활동에 헌신해 온 2024학년도 임원 1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시작되었다.

순천교육청 허동균 교육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며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신 모든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이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2025학년도 연합회 임원 12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향후 1년 동안 순천 지역 학부모회를 대표하여 교육 발전과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사장 수여 및 위촉장 전달 이후에는 전년도와 신입 임원 간의 인숙인계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순서로 허동균 교육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허동균 순천교육장은 “학부모회의 역할이 해마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순천의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천=조준희 기자